

거리두기 연장 제주 관광업계 '속앓이'

도, 정부 조정안 검토 끝 제주형 2단계 지침 2주 연장 설 앞뒤 숙박시설 등 예약률 상승속 여행 취소 불가피 업계 "경연난 겪지만 관광객 마냥 반길수 없어 답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이 2주 연장되면서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도내 관광업계 대부분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입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놓고 관광객 유치에 나설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18일부터 6주 연속 이어지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등의 영향으로 도

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는 제주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방역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도내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특급호텔, 리조트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객실을 3분의 2 수준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열을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내 특급호텔 예약률은 40~5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예약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도내 렌터카 예약률도 현재 1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30~40%대로 치솟았다. 도내 리조트 등 숙박 시설의 예약률도 소폭 상승하는 등 관광업계는 설 연휴 기간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제주도가 정부 조정안을 검토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을 설연휴 기간이 끝나는 14일까지 2주 연장기로 결정하면서 도내 숙박시설 등의 예약률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예약을 완료한 고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계획된 제주 여행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특급호텔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한 직후 예약 취소 관련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광업계와 더불어 도내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 매장 등은 매출이 70~80%나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적자에 가게문을 닫는 곳도 여러곳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4·3 희생자 15명·유족 5117명 추가접수

도, 오는 6월말까지 진행 이달부터 사실조사 착수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가 신고가 오는 6월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 접수 시작 3주 만에 희생자와 유족 5000여명이 추가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결과 지난 22일 기준 희생자 15명, 유족 5117명의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7차 추가신고 관련 문의자

1635명에 대해 추가신고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도내 일간지, 인터넷신문, 서울제주도민회신문, 재외제주도민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추가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 2월부터 면담조사와 사실조사 진행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는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달 4·3중앙위원회에 심의 및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송종식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3년 만에 이뤄지는 추가신고 접수기간 중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미신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대기기자

제주 경찰, 설 명절 비상체제 돌입

제주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둔 오는 14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긴급신고에 대비한 체계를 갖추고, 특히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이탈·행정명령 위반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다수 인원 밀집을 막기 위해 공·항만 주변 도로 및 재래시장·대형마트 등에서

교통관리를 진행하며, 양행순찰차를 활용한 난폭운전 등 사고 위험행위도 집중단속한다.

또한 절도·폭력 신고 현황과 금융기관 등 밀집지역을 분석해 범죄 취약시간·장소를 위주로 순찰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학대 재발 우려가정 모니터링을 확대, 만약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송은범기자

초등 '생존수영' 교육 올해 실기 가능할까...

지난해 코로나19로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생존수영 실기 교육이 올해 운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8일 "2021 7대 희망정책"으로 선정된 '감염병 예방 및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의 역점 정책을 발표했다.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 중 '생존수영교육'은 감염병 위기 '경계 단계'까지는 정상 추진되지만, 심각단계부터는 학부모 동의하에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지난해 생존수영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초등학교는 실기 위주에서 이론 교육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초 실기 교육은 초 1~2학년은 3시간(1회) 이상, 3학년은 4시간(2회), 4~6학년 10시간 이상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론 교육으로 대체됐다.

현재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춘 올해 생존수영 교육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2월까지 실시하는 '학교 체육시설 외부 개방 중단' 조치 연장 여부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

체육수업과 학교 스포츠클럽은 안전수칙 교육과 일상 속독 등 감염병 예방조치, 상시 환기를 유지한 가운데 운영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한라산 배경으로 '찰칵' 주말인 30일 1100고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한라산 상고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 도, 2020년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실태조사 4곳중 1곳 '유명 언론'... 1년이상 미발행

제주지역 인터넷 신문사 4곳 중 1곳은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유명 언론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제주지역 신문·인터넷신문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실태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주간지 22곳, 인터넷신문사 73곳, 뉴스서비스업 2곳을 상대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1차 인터넷신문, 뉴스서비스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신문사를 방문해 실태조사 결과, 필요적 게재 사항 기재여부, 발행 주기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인터넷신문사 73곳 중 36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7곳(23.4%)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1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들 언론사 중 6곳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권고했으며, 나머지 11곳에 대해서는 신문법시행령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을 예고했다.

이밖에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공개 지침을 지키지 않은 뉴스서비스업 1곳과 발행 주기를 어긴 주간신문사 1곳에 대해서 각각 시정 권고와 준수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도는 신문법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도민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언론 환경이 구축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상민기자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제주의 민낯

평균 83.66점 '최고' 교통안전평가 A등급 운전·보행행태는 'C'

제주지역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2020년 교통문화지수는 83.66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교통문화지수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에서 19개 지표를 평가해 산출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 평가에서 제주도는 25점 만점에 20.45점을 받아 A등급으로 분류됐다.

제주도는 그러나 나머지 운전행태(55점 만점)와 보행행태(20점) 평가에서 각각 46.68점과 16.73점을 각각 받아 C등급으로 분류됐다. 제주도는 교통문화지수 평가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에 힘입어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에 오른 것이다.

제주도는 최근 4년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3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2018년 1위, 2019년 3위를 기록했다.

이학승 도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가 교통문화지수 1위를 달성한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교통문화의식이 높아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스마트 공장 준공

- ▶ 모니터링 시스템
- ▶ 태양광발전소 운영
- ▶ 스마트O&M 운영 플랫폼
- ▶ 누구나충전소 운영
- ▶ 급속충전기 제조
- ▶ 완속충전기 제조
- ▶ 전기/통신공사
- ▶ 항공동화 시공
- ▶ 복합창고, 옥외광고
- ▶ 35MW발전소 전력 지역연계
- ▶ 다중합시행 전계발전사업

우수제품지정증서

태양광발전장치 전기차충전기 제조
전기/정보통신 금속구조물 창조
누구나전기차충전소 전기신사업 (EVC)

보타리에너지(주)는 모든 고객님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 사업용태양광발전소, 주택건물태양광,기화형(농촌)태양광
- 개방형충전소 (급속,완속), 홈충전기

그린뉴딜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

보타리에너지(주)

064-747-8826
고객센터 1588-5339